

[오피니언]

테마칼럼

문화와 사회

ECONOMY

디자인 세상

교육과 미래



이 난경

“

최근 들어 테니스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들씬하고, 예쁘고, 힘있는' 여자선수들의 등장이 한 몫을 했다. 거기에 의상까지 날로 '화려하고, 세련되고, 짙어지니' 금상첨화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호주 오픈 '컬러마케팅'을 보라

요 며칠 매서운 추위가 옷 속을 파고드니 겨울을 실감하고 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야' 하면서도 따뜻한 봄이 오길 벌써 기다린다. 우리가 추위와 싸울 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형택 선수가 5년 만에 호주오픈테니스 단식, 복식 2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골프처럼 한국선수가 많지 않은 세계 테니스 계에 유일한 상위랭커 한국인 노장(?) 이형택 선수의 선전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도 뿐듯해진다.

케이블방송 시간에 맞춰 일찍 집에 와 설레는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역동적인 오프닝 화면에 이어 호주 멜버른의 로드레이버아레나의 전경을 보여주며 경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선수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블루였다. 녹색이었던 호주오픈의 코트가 블루로 바뀌니 훨씬 생동감이 넘치고 세련돼 보인다. 호주관광청 홍보CF의 푸른 바다 이미지가 저절로 떠오른다. 직업병이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노트북을 끼어들었다.

'호주오픈 트루 블루(Australia Open True Blue)'. 호주오픈을 상징하는 색의 이름이다. 호주테니스협회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선수들을 위해 태양열을 덜 흡수하는 플렉시루션으로 코트를 변경하면서 노란색 테니스공이 더욱 잘 보이는 두 가지 다른 톤의 푸른색을 결정한

뒤 '호주오픈 트루 블루'라 이름 붙여 상표등록까지 했다고 한다. 새해 벽두에 열리는 호주오픈은 전 세계 170개국에 방송되고 5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행사로 자국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이므로 '호주오픈 트루 블루'는 탁월한 선택이라 할 만하다.

경기장을 계속 관전하는데 유난히 코트 한쪽 끝에 있는 'MELBOURNE'이라는 로고마크가 눈에 띄었다. 보통 유명 대회가 열리는 테니스 코트장 한쪽 끝엔 소재지 도시명이 표시된다. '세계가 경기하려 오는 곳'이란 대회 슬로건과 어울리고 역동성이 느껴지는 입체적 사각바탕에 글이 들어간 형태로 바뀐 로고마크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스포츠와 관광의 중심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최근 블루 테니스가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늘씬하고, 예쁘고, 힘있는' 여자선수들의 등장이 한 몇을 했다. 거기에 의상까지 날로 '화려하고, 세련되고, 짙어지니' 금상첨화다. 흰색과 푸른색의 의상을 입은 선수가 공을 쫓아뛰고 있다. 푸른색 바탕에 흰색의 조화가 시원스럽고 상쾌하다.

이번 대회 선수 의상은 흰색, 푸른색, 분홍색이 대세이다. 특히 연한 패스텔 색상의 분홍색에서 진분홍까지, 다양한 색상의 분홍색이 푸른색의 코트와 환상적으로 어울린다. 올해의 유행색이 '밝고 화사한 캔디컬러'라더니, 컬러트랜드의 첨단을 코트에서 볼 수 있었다.

선수들의 땀 뒤에선 소리 없는 스포츠 마케팅의 전쟁이 벌어진다. 선수 개인화를 위해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공하는 스포츠의류업체 뿐 아니라 기아자동차, GE, IBM 등이 자사를 홍보하고 있었다. 기아자동차는 행사차량 제공과 전시부스 설치 등을 통해 5억 달러 상당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호주의 기아차 판매가 늘었다니, 유명 자동차디자이너의 영입과 함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려는 경영 마인드를 읽을 수 있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광주시가 선진 광주체육 도약을 위한 '광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진월체육공원 국제규모 테니스장 건립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는 광주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경기장 조성부터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에 '글로벌 디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 세계에 인정받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반구의 태양 아래 세계 각국의 깊음과 땀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함께 어울리고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잠시나마 눈과 마음이 상쾌해진 순간이었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이가 시리다

며 유난히 병원을 많이 찾는다.
시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땀 겁거나 찬 음식물 같은 온도 차, 이를 뒤집거나 먹었을 때 나타나는 촉각 자극, 단 음식이나 신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자극 등이다. 이러한 자극을 받을 때 통증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시린 증상은 나이와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범위 역시 단순한 불쾌감에서부터 지속적이며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고 시린 정도의 차이도 심해 수치화하기는 힘들다.

손재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이가 시리다
며 유난히 병원을 많이 찾는다.
시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땀 겁거나 찬 음식물 같은 온도 차, 이를 뒤집거나 먹었을 때 나타나는 촉각 자극, 단 음식이나 신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자극 등이다. 이러한 자극을 받을 때 통증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시린 증상은 나이와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범위 역시 단순한 불쾌감에서부터 지속적이며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고 시린 정도의 차이도 심해 수치화하기는 힘들다.

올바른 치솔질로 시린 이 예방하자

찬바람이나 냉수, 아이스크림 등을 먹을 때 시린 이유는 노화로 인해 잇몸이 내려앉아 이의 뿌리가 노출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잇몸병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솔질을 좌우로 강하게 한 나머지 치아의 옆구리가 심하게 휘어거나 마모돼 일어나기도 한다. 다른 원인으로는 잇몸치료를 받은 후 치아의 뿌리가 노출돼 나타날 수도 있고, 이가 서로 조화롭게 물리지 못하여 치아의 옆구리가 깨지고 휘어면서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린 부위에 치솔질을 하기 힘들고 또 일부러 회피를 하기 때문에 치면세균(플라크)이 많아 쌓여 잇몸 건강은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잇몸 염증과 풍자가 급속하게 진행돼 잇몸은 더 주저앉고 시린 증상도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치료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린 이에 불소를 바르는 방법이다. 불소

고 휘어 시리고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때는 치아색이 나는 재료로 막아주어 시린 증상과 심·미적 요인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를 위해서는 윗니와 아래니가 조화롭게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절하고, 치석제거를 통해 치아玷면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든 다음 약제를 바르는 것이 순서다.

시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다. 잘못된 치솔질 방법을 바꾸는 것은 가장 손쉬운 예방법 중 하나다. 잘못된 치솔질로 계속 이를 닦으면 치아 마모는 빨라지고, 치아 사이사이에 남은 음식물로 인해 잇몸 염증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잇몸은 점점 아래로만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평소 올바른 치솔질 습관은 치아와 잇몸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치료 약제가 치아 속으로 잘 침투할 수 있게 해 시린 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서정치과 원장·치의학 박사〉

음식점, 고급스런 식탁 용지 사용 자제해야

남도 음식은 맛있고 푸짐하기로 정평이나 있다. 어느 식당에서도 큰 상에 갖은 반찬이 차려진다. 고급스런 식당에서는 식탁 위에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를 깔아놓는다. 손님은 '깔끔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그 식탁 종이는 고급 지질인 모조지(백상지)이며 크기도 A3(5절)로 매우 크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결혼식 피로연 등에 가면 더욱 그렇다.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도 고급용지를 쉽게 볼 수 있기는 마찬가

지다. 음식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계산서 용지를 들고 와 해당란에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고가의 노카본지(NCR지 : 면지를 대체 않고도 앞면의 글씨가 뒷장에 자동 복사되는 수입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펠트가 부족해 펠트용 목재를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한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일수록 경쟁적으로 사치스러운 식탁용지와 주문 계산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허례허식이라고 생각된다. 자원 절약은 크고 면에 있지 않다. 식탁용 종이 사용을 자제하자.

▲안효빈·광주시 남구 원산동

복지에도 시장경제 원리 도입돼야

사회복지대상과 그 영역의 확대는 복지예산 및 정책과도 직결돼 국가의 공적 지원만으로는 수많은 복지욕구의 총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공동모금과 같은 더 많은 민간재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됐고, 동시에 민간 사회복지의 인프라를 확충시켜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4대 비우처사업(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 산모도우미,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비스 비용의 분담 및 대상의 다양성이다. '비우처'라 불리는 서비스 이용권은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수혜자가 함께 부담을 하는 형식이다.

업종설한인데도 노숙자는 줄어들지 않고

어진다면 국가는 이를 잘 감시하고 조절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보험 활성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민영보험에 활성화되면 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민영 의료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만 내면 추가부담 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복지영역의 시장원리 도입이 잘 이루

어진다면 국가는 이를 잘 감시하고 조절함과 동시에 지금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크게는 국민, 작은 지역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게 하여 정부가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늘어나는 복지욕구, 복지영역의 확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안에서 민간 참여 등의 확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역할이다. 앞으로의 복지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진군 병영면장〉

후진국형 전염병 '결핵' 국가 차원 대처를

남도 음식은 맛있고 푸짐하기로 정평이나 있다. 어느 식당에서도 큰 상에 갖은 반찬이 차려진다. 고급스런 식당에서는 식탁 위에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를 깔아놓는다. 손님은 '깔끔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그 식탁 종이는 고급 지질인 모조지(백상지)이며 크기도 A3(5절)로 매우 크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결혼식 피로연 등에 가면 더욱 그렇다.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도 고급용지를 쉽게 볼 수 있기는 마찬가

지다. 음식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계산서 용지를 들고 와 해당란에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고가의 노카본지(NCR지 : 면지를 대체 않고도 앞면의 글씨가 뒷장에 자동 복사되는 수입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연간 200만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중 결핵환자 사망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결핵 발병 유형별로는 노숙자의 발병률이 일반인의 10배나 되고 오지나 벽지,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감염률이 높다고 한다. 또 20~30대가 60대 이상 노인층에 비해 더 많고 초·중·고교생의 감염도 부쩍 늘

▲이현미·광주시 남구 원산동

시설

하계 U대회 유치에 지역사회 역량 쏟자

광주시가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정립총회를 갖고 유치전에 돌입했다.

2년마다 열리는 하계 U대회는 단순한 대학생 체육행사가 아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교육·체육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다. 170여개국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선수단의 규모는 아시안게임에 버금 간다.

생산유발 9천500억원, 소득 유발 4천 500억원, 고용창출 3만명 등 경제효과도 막대하다. 특히 하계 U대회 유치가 성공할 경우 광주는 2012년 건립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광주의 도약을 위해 하계 U대회 유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관건은 유치전략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다. 2013 U대회 유치에 나선 도시는 5개국 7개 도시에 이른다. 그 경제계와 체육계 등 민간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체널과 함께 대기업의 해외자사망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하계 U대회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유치에 대한 의지와 열망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대학 등록금 대폭 인상 연례행사 안된다

신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을 물리싼 대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100여개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속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등록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학가는 거의 예외없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은 인상률이 너무 높아 맞서왔다.

지난 전국 대학 납입금은 2006년에 비해 국·공립대 8.6%, 사립대 7.0%나 인상됐다. 전체 소비자物价가 상승률 2.5%의 2.8~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부 사립대에선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지 오래됐다. 재단의 전입금은 미미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만 연례행사처럼 큰 폭으로 올려온 결과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5.8%, 수업료는 6.9%, 국립

無等鼓

최근 끝난 대만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진당이 야당 국민당에 참패했다. 국민당은 입법원 의석